

크리스천 가정의 신학적 기초 1

김현경 교수(BACC Director)

“기독교 가정의 성경적 기초”라는 제목 아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근원적인 2 가지 요소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도전 중 하나를 저는 의식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다양한 세계관과 이에 따른 상대적 가치관이 허용될 뿐 아니라 다양한 social media 의 통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참 작은 기본 단위인 가족 공동체 가운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혼돈된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정의 붕괴와 이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을 확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패밀리 life 와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신학을 정립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인 성경적 요소는 바로 언약입니다. 많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Balswick 교수는 언약의 개념을 근거로 기독교 가정의 4 가지 관계적 원리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네 가지 가정 원리를 좀 더 실질적인 가족관계에서 적용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민족 가운데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요한 일서 4:10 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사랑, 즉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capacity 를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자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때론 넘쳐나는 가족 사랑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없이 자신의 방식, 자신의 언어로 일방적으로 사랑하기에, 때론, 그것이 사랑이 아닌 속박과 요구로 상대에게 전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를 성장시키는 사랑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소중히 존중받고 또 사랑받는 자임을 경험하며 성장할 때, 자녀들은 건강한 내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자아 존중감을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선제 조건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깊은 관심과 존중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즐겨워하는 부부관계가 바로 온 가족 가운데 건강한 모델링과 가족 분위기를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은혜입니다, 즉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본질상, 은혜가 아니면 지탱될 수 없지요. 계약적 관계에 기초한 결혼과 가족관계는 결국 율법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은 결코 무시되어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 없는 율법만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완전함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가정에 엄격한 규칙과 제재들이 세워지게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쩌다 옷깃을 스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긴 세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그로 인한 죄의 실체가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할 때, 또 이로 인해 가족들을 아프게 할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자신과 서로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 적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랑의 서약 가운데 서로를 받아들이는 가정의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